

特輯: 양계기구 및

시설의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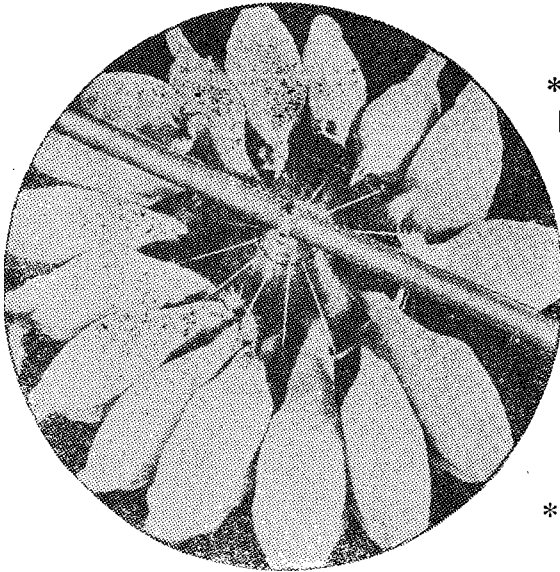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양계업은 그 규모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만큼 큰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아직까지 시설의 자동화와 인력을 절약하기 위한 계사의 구조 등에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인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노동력이 부족할 때가 올 것이고 그 때에는 일인당 관리 수도 많아질 것이며 시설의 자동화 계사구조의 변혁 등은 필연적인 시대의 요청이 될 것이다. 노동력 절감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계사의 구조와 시설의 개선점을 특징으로 마련하던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직 이 방면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 자료가 전무상태라는 것이다. 아쉬운대로 문제점을 제시 이번호의 특집을 마련하였다.

* 양계기구 및 시설의 개선점

* 부로일러 계사의 개선점

* 채란계사의 개선점

* 종계사의 개선점



□ 특 집 □

양계기구 및 시설의 기계화 문제

오 세 정

<건국 대학 교수>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형태와 내부 구조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설의 형태와 구조가 닭의 생활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나가서는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경영상 생산비의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시설은 환경조건인 온도·습도·환기·광선·안정·위생·생활 동태 등 생리적인 작용과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닭의 발육과 생산능력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적인 면에서는 투하 자본에 대한 효율성과 이용성, 시설의 상각비, 관리하는 인건비 지출의 다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며 나가서는 사료의 손실, 계란의 파손, 닭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피해로 경제적인 수명을 단축시키고 계분의 유실 등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할 때는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경영상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시설되어야 한다. 일단 시설이 완성된 다음에는 구조의 변경과 개선 및 보완을 하자면 비용이 별도로 더 추가되는 것이나 장기적인 계획과 지표를 세워 시설되어야 한다.

건물과 내부 시설은 닭의 생산능력과 생산비를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경영상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설의 개선에 최대의 능력을 다하여야 될 줄 안다. 여기에서는 시설의 기계화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1. 기계화의 필요성

영농구조의 개선과 경제성장에 따르는 규모의 확대로 경영의 근대화는 기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양계업에 있어서도 근대화는 건물이나 시설을 기계화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점차 전업으로, 전업에서 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기계화가 촉구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건비가 싸다고는 하지만 계란 한개당 생산원가면에 미치는 영향은 40~70점으로서 인건비가 비싼 외국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인당 관리 수수가 외국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가노력으로 부족하여 고용노임을 지불하게 될 때, 즉 사양 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기계화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인사관리의 난점을 타개하고 균일성 있게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계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관리 작업 중에서 가장 노력이 많이 드는 모이와 물을 주고, 알을 걷고, 똥을 치우는 일, 세란과 선탄, 시간적인 점등 등을 일일히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화함으로써 노력이 절약되어 더욱 많은 마릿수를 길어 수 있게 되므로 인건비는 절약되는 것이다.

2. 기계화의 장단점

(1) 생산비 중 인건비가 절약된다.

기계화되면 생력(省力)으로 현재 관리 수수료보다 몇 배 또는 몇 십배 관리가 가능하므로 적은 인원으로 사양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인건비가 절약된다.

(2) 인사관리가 용이하다.

사람이 많으면 경영주로서는 여러가지로 인사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이다. 자가 노력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고용 노동을 이용할 때 인사관리를 잘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고 잘못하면 경영면에서 성과를 건우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화가 되면 1/5~1/10로 인원을 적게 쓸 수 있는 것이다.

(3) 닭에게 안정감을 준다.

사양관리를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닭을 놀라게 하고 한곳에 몰리어 압사 또는 다치게 되는 것이 생기여 도태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모이를 줄 때 한곳에 몰리며 계분(除糞)할 때 잘 놀라고 사람의 출입이 심할 때 닭은 불안감을 갖게 되어 능력의 저하는 물론 도태계가 많이 나와 경제적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계화는 사람의 출입을 적게 하므로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4) 작업의 균일성을 도모한다.

숙련되고 성실한 관리 인부라 하더라도 1년동안 한결같이 균일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숙련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바뀔 때에는 균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불안감을 주게 되므로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일시적인 관리의 변화와 착오로 인하여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계화함으로써 항상 한결같이 평균된 작업을 계속하여 주어 이러한 불안을 없애 준다.

(5) 관리의 정확성을 기한다.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또 정확하게 수행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건강이나 사회생활의 형편상 여러가지 사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인에 있어서는 표리가 있기 쉽고 부정확한 관리가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점등시간은 정확히 수행되어야 될 것을 불규칙적으로 하면 산란과 생육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동 스위치를 달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화되는 것이 유리하다.

(6) 경비상 차이가 생긴다.

인건비는 매년 상승일로에 있고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승급과 상여금도 매년 늘어간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계화가 되면 시설 상각비는 해마다 적어지고 많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잡비의 지출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화가 유리하다.

(7) 작업 내용의 양부(良否)

제작이 정밀하게 잘 되어 있는 기계는 사람의 손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교묘하게 작업을 한다. 즉 정밀하게 된 자동급이기는 사료를 흘리는 일이 없으나 사람의 손으로 주게 되면 5% 이상 낭비되므로 사료비의 절감을 위하여도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집란·세란·선란에 있어서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과 기계로 하는 것이 파란에 있어서 5% 정도 틀리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기계화는 유리하다.

(8) 관찰과 위생면에서

옛말에 “산란수는 관리자의 발자국 수에 정비례한다” 하여 계사와의 빈번한 왕래를 장려하여 왔으나 이것은 관찰을 철저히 시키기 위하여 지어진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작업에 몰두하고 바쁘다고 하면 관찰할 겨를이 없으며 닭의 상태를 살필 수도 없이 계사의 출입만 많아지고, 수입이 많을수록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병원체를 운반하는 기회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찰은 아침 일찍 한번만 관찰하고 계사에는 되도록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위생적이고 닭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러므로 기계화는 방역의 철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9) 인력의 한계를 넘는 것을 기계로 해결할 수 있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나 어려운 것을 기계의 힘으로 해결하므로써 속히 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계화의 장점이 있는 바 하루 속히 부분적이거나 기계화가 되기를 촉구한다.

이에 반하여 기계화의 결점은 일시에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기계화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게 된다.

3. 기계화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

(1) 부분적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시설과 형편으로는 일시에 전부 기계화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것에서부터 기계화를 시작하여 차차 전부틀 기계화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기계화는 효과나 성과가 적으므로 가급적 관리작업(급수·급이·제분·채란·점등·환기 등) 뿐만 아니라, 계란의 처리에 있어서 세란·선란·검란·포장까지도 일관성 있게 취급되도록 하고 또 도계처리에 있어서도 도살·탈모·냉각 등의 과정을 콤비어로 운반하여 다음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여 일관성있게 기계화할 것.

(2) 환경의 조정(調整)

기존의 계사에다 새로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는 별 문제지만 일관성 있게 한 조로 기계화하

자면 계사의 건물 자체도 중요한 것이다. 건물의 방향·넓이·벽·천정·창문 등은 계사내의 환경을 좌우하게 되느니만큼 기계화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즉 환기가 가장 중요하여 보온·건조·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기계화에 있어서는 건물에 대하여도 특별히 유의할 것.

(3) 생력(省力)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중요시할 것.

기계화의 초기에는 생력만을 생각하여 왔으나 그 외 장점에서 들은 바와 같이 여러가지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 즉 사료의 절약·파란의 감소·소독 및 생산능력의 향상(부화율·육추율·산란율) 등 경제성을 특히 유의하도록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 양계 사업의 기계화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장점을 들었으나 앞으로 하루 속히 기계화에 대하여 양계업자 자신이 반성하고 경영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하루 속히 기계화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존 양계업자는 기계화를 도모할 것이고 새로이 대규모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기계화에 편리하도록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 사료

전국배합사료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44-7 교환 ②2182-7 ②9284